

당신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나눔'이 회자되곤 한다. 그런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사회적기업은 무엇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몇 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이란 특별한 조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글_ 편집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 왜 육성했나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는 5만 5,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2006년 기준 전체 고용의 5%, GDP의 1%를 차지하며 총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경제성

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 능력은 저하되고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차츰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노동부는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를 통해 첫 해에는 73억 원, 2천 명의 일자리를 늘렸으며, 2007년에는 11개 부처가 동참하면서 1조 3,000억 원,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된 두 번째 배경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경영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외국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는 2005년 기준 1만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은 2004년 1조 2,228억 원, 2005년 1조 4,025억 원, 2006년 1조 8,0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경련 조사에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CSR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